

웅장한 설악산의 비경 오색케이블카로 넘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웅장한 설악산의 비경
오색케이블카로 넘다

남설악오색의 비경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게
안식처로서 삶의 휴식을
전하며 함께 해오고 있다.

이제, 설악의 그 웅장함과
비경을 누구나 같이 공유하며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그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의기양양의 솟구치는 원동력이
이제, 오색케이블카의 대업으로
이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지 면 안 내

● 2면 오색케이블카 공청회 사업추진 탄력
● 5면 대학생 문화활동 홍보역할 '특특'

● 3면 양양경찰서 · 농관원 유치활동 본격화
● 6면 옥수수조사료 생산 확대 축산농가 도움

● 4면 "성황제 등 전통 근간 명확한 컨셉 설정해야"
● 7· 8면 철산마을 소득기반 창출 새 도약 · 생활정보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을 염원합니다

오색케이블카 공청회 사업추진 탄력

우리군 “전문가 중심 전략적 대응 주요 공감대” 9월 하순경 국립공원위원회 최종 결정 전망



우리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지난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 중심의 전략적 대응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과천 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정상철 군수와 김상표 강원도 경제부지사, 국립공원위원, 오색케

이블카유치위원, 환경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악산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단체는 이날 토론에서 설악산은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서식처로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종의 서식지 훼손과 함께 해발 1500m의 아고산 지대의 환

경훼손 및 경관훼손, 지주대(24번) 설치에 따른 주변환경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며 반대주장을 펼쳤다.

이에 맞선 우리군과 전문가 집단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는 주봉인 대청봉을 크게 회피한 상태로 산양의 주요 서식처와는 거리가 먼데다, 상부 정류장도 아고산 지대가 아닌 해발 1395m여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환경단체가 지적한 2·4번 지주대의 경사도가 30~35도로 급하지만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며 환경훼손 우려가 높을 경우, 주변으로 이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응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케이블카는 이미 스위스 등 관광 선지

국에서 해발 2000m 이상에 설치해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케이블카를 친환경 비즈니스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이날 공청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 우리군이 그동안 지적돼온 환경·경관·기술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완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각계 전문가 중심의 패널을 꾸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분야별로 논리적으로 대응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또 이날 공청회에 우리군을 중심으로 한 찬성측은 25명 정원을 채운 반면 환경단체 등 반대측은 15명 정도만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가 우리군의 논리적 대응에 따라 지난해보다 완성도를 높이며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청와대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의 교감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에

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날 공청회에 정상철 군수를 비롯해 김일수 의장, 김현수 공동추진위원장, 김주혁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창근 오색리장, 최종한 전 문화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탤다.

정상철 군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국민이 이용하는 국립공원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 수단으로 가장 잘 보전하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오색케이블카는 국민의 권리가 국익과 접목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므로 반드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지역 선정사업은 이날 공청회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추석 후인 9월 하순경에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선정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미래전략과
오색케이블카담당 670-2530

양양국제공항 개항 이래 첫 정기노선 뜬다

31일부터 양양~중국 상하이 매주 수·토요일 운항...왕복 40만원대



양양국제공항 개항 이래 첫 국제선 정기노선이 개설될 전망이어서 공항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는 기존에 운영되던 양양~중국 상하이 전세기 노선의 주관항공사인 길상항공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정기노선으로 확대해 운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157석 규모의 중국 길상항공 소속 A320기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4회 왕복 운항될 예정이다.

상하이 노선의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12시10분 양양국제

공항을 출발해 오후 1시10분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게 된다. 운임료는 기존 전세기 노선과 같은 왕복 41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설되는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은 양양국제공항을 출발해 동해를 거쳐 러시아 영공을 통과한 뒤 푸둥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경로여서 인천국제공항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 개설은 최문순 도지사가 지난 6월 중국 길상항공을 방문해 정기노선을 제안한데 이어, 도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C-Trip)과 협업체제를 강화한 것이 주요

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인-아웃바운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상하이 정기노선에 내국인들의 좌석을 32석으로 늘려 배정받는 등 교차관광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아웃바운드 여행이 너무 많아 외화 유출이 심하다고 판단, 불균형적인 전세기 노선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제주와 김해공항 등은 조정이 필요해 타격이 예상되나, 양양국제공항은 전세기보다 정기노선으로 확대 개편할 가능성이 커져 호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중국 상하이 전세기는 90%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얼빈과 다롄 등 3개 전세기 노선은 2만4천여명이 이용하는 등 개항 이래 최대의 외국인 관광객이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연길노선도 오는 9월3일부터 왕복항공료 65만원대로 시범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양양국제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우리군 인사발령 임용장 수여

안전총괄 신설 7명 전보 인사



우리군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군수실에서 한덕복 안전행정과장 등 7명에 대한 인사발령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존의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변경하고 정용교 교통

행정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김중래 노인복지담당을 교통행정담당, 이소영 양양읍사무소 민원담당을 노인복지담당, 정윤교 담당요원을 양양읍사무소 민원담당으로 전보했다.

안전행정부-우리군 공동협력 협약 체결

경제도시과 주요 현안사업 지원 강화

우리군이 중앙부처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자매결연을 맺은 안전행정부부를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한홍빈 우리군 경제도시과장 등 7명은 이날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를 찾아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을 비롯해 물가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규제 완화·지원 등 컨설팅 및 지원, 자전거도로 구축 등 우리군과 연계한 주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홍빈 과장은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에 우리군이 연계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만큼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는 이날 우리군의 요청에 따라 오는 9월 현지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해결 등에 나설 방침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의 정 소 식

양양경찰서·농관원 유치활동 본격화 우리군의회, 제192회 임시회서 건의문 채택



우리군의회(의장 김일수)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제 192회 임시회를 열고 양양경찰서 유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 등 2건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막중한 공무에 여념이 없으신 줄 알지만 이렇게 건의문을 올리게 된 것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치안 서비스의 부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양양경찰서 유치에 대한 우리군민의 염원을 건의 드리고자 함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군은 1963년 관내 경찰서가 속초시로 이전한 후 경찰서가 없는 유일한 군(郡)지역으로 인근 속초시의 경찰서에서 2개 자치단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군이 반세기 동안이나 민생치안 소외와 범죄 취약지역으로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서가 없는 지자체는 10여 군데(부산 수영구, 인천 동구·옹진군, 충북 증평군, 충남 태안군·계룡시 등)이며, 우리군의 경우도 지금까지 속초경찰서의 ‘더부살이 치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군과 속초경찰서는 지리적으로 최대 45km나 떨어져 있고 치안기구와 치안행정력 또한 속초시에 편중되

어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치안수혜와는 거리가 있는 당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치안공백에 따른 현장대응능력의 부족과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초동 수사의 어려움과 각종 범죄의 발생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경찰청의 가장 큰 원칙인 1지자체 1경찰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우리군은 광활한 면적(629.32km²로 속초시 105.30km²의 6배)과 설악산, 낙산사, 하조대 등 관광명소와 유명호텔, 그리고 양양국제공항과 양수발전소등 국가중요 기간시설물이 위치해 있고, 연간 6백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강원도 핵심관광지역이므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치안 수요의 필요성이 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시군의 인구와 비교해도 우리군의 인구는 2013년 7월말 현재 27,652명으로 이미 경찰서가 설치되어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받고 있는 구례군(27,309명), 청송군(26,745명), 장수군(23,494명), 무주군(25,268명), 군위군(24,699명), 영양군(18,379명), 울릉군(10,673명)보다도 훨씬 많고 강원도 내에서도 화천군(25,025명), 양구군(23,039명)보다도 많아 지역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동해·동서고속도로의 개통과 오색케이블카 유치, 그리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치안을 위해서 넓은 안목으로 10년, 20년 후의 치안수요를 판단하고 우리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리한 치안행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지역이 명실상부한 체감안전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치안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우리군민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는 만큼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중심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양양경찰서 유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지역 농업인들이 경쟁력 있는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나서 달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를 요구하

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군의회는 “우리군은 총면적의 11%인 53.72km²가 농지이며 총인구 대비 28%인 7,841명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고 이제까지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시책에 적극 일조하면서 복지농촌과 부농을 꿈꾸면서 지역특산물 개발과 영농의 과학화와 품질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활력 있고 희망찬 농촌의 백년을 준비하고 있으나, 최근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지역은 친환경 농업정책을 군정의 주요 전략으로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논벼의 타라이스, 우렁이 농법 등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출하 하고 있으며, 배·감·송이버섯·표고버섯 등 경쟁력을 가진 주요 농특산물의 생산량이 인근 지역에 비하여 높아 이에 대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행정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더욱이 우리군은 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속초시보다 농업인 수나 영농규모가 거의 4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익보다는 불편을 감당하고 있으니 지역 농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농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제 농업은 제2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농업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양사무소 설치에 농업혁신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업면적과 다량의 특산물 생산, 농업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양군의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농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를 지역농업 혁신과제로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리군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경찰청,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전달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내년도 건축재정 주문 많아

우리군 2014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문화관광·지역경제 집중 투자 요구

우리군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2014년도 예산편성 주민 설문조사결과 건축재정을 통해 문화관광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9%로 압도적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로 지난해(33%)보다 크게 줄어 살림살이 규모에 맞게 집중과 선택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반드시 필요사업 위주로 선별투자(63.8%)하고, 문화관광 분야(24.4%)와 지역경제 분야(20.4%)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산림과 체육, 도로·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시기를 늦춰야 한

다고 답했다.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기업유치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27.5%)과 차별화된 인재양성(23%) 의견이 많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지원경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책제안으로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수립과 군의 비전과 로드맵을 작성 공표, 체류형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센터 설치, 남대천을 활용한 워터파크 설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군은 설문조사결과 재정규모는 줄이되, 꼭 필요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

는 군민들의 의견을 2014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계획인 가운데 군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265명(인터넷 107명, 서면 158)이 참여했으며, 40대(36%)와 농축어업인(22%), 남성(63%)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박상민 기획감사실장은 “중앙정부의 시책과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군정 운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8

양양함 수병들 양양서 봉사활동

마라톤 선수 후원 및 낙산요양원 봉사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해군 제52전대 소속 ‘양양함(함장 임요준)’이 영해수호 활동 속에서도 시간을 내 양양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가 미담이 되고 있다.

양양함은 지난 7월 31일 새벽, 속초항에 입항한 뒤 10년간 후원해 오고 있는 현북중학교 마라톤 선수 이주형 학생을 격려한 후 수병 10여명이 낙산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양양함이 입항하자, 정상철 군수와 김일수 군의장 등 관계자들이 직접 양양함을 찾아 격려했다. 지난 1999년 우리지역의 이

름을 따 명명한 ‘양양함’은 2005년 대형산불과 2006년 집중호우 등 연이은 재해로 우리군이 어려움을 겪자, 성금을 모아 우리군을 방문한 뒤 자원봉사를 하며 인연을 맺게 됐다. 이어 이듬해인 2007년 양양함 관할 부대인 해군 제52전대 부대 관계자가 우리군을 방문해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체결한 뒤 연 1회 상호방문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양양함은 지난 1999년 양양의 위국충절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한 800톤급 함대로 55명의 수병이 탑승해 물샴 틈 없는 영해수호 활동에 여념이 없다.

“성황제 등 전통 근간 명확한 컨셉 설정해야”

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 발전방안 세미나...지역고유 콘텐츠 개발 세계화 나서야



양양문화제로 개명 제안도

설악권 향토문화축제의 진수로 평가받고 있는 양양현산문화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고유의 콘텐츠를 개발, 관광상품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세계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최익수)는 지난 16일 문화복지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정상철 군수와 김일수 군의장,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최익수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병철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는 “양양현산문화제는 읍치 성황제와 성황굿이라는 역사문화적 전통을 근간으로 축제를 재해석하고 명확한 컨셉을 설정해 특성화 및 차별화를 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함석종 강릉원주대 교수는 “양양현산문화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 대표 향토축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 작업을 통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1단계 기반을 구축한 뒤, 관광자원화

및 관광매력 극대화, 콘텐츠 개발과 상품화 등 2단계(2020년까지) 도약시기를 거쳐, 2025년까지 관광상품화, 전통문화지구 조성 완료, 세계화에 나서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이어 김영표 관동대 교수는 “양양군은 축제 주체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연관 인프라 구축, 유치자금 지원 및 보증, 민간 사업체와의 스폰서 강화, 투명성 및 일관성 유지, 참가업체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는 “축제명칭의 재정립과 함께 성황신의 정체성도 필요하고 동해신묘의 위상과 역사적인 인물 선양사업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현재 양양의 정통성을 찾는다면 현산문화제는 양양문화제로 개명돼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표 후 김택철 군의회 부의장, 윤여준 양양현산문화제위원, 이관현 문화관광과장, 이규환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등 4명의 지역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670-2728

“산악영화 보며 암벽 오르고”

제1회 오색환경산악영화제 성료

“시원한 오색에서 산악영화제의 진수를 맛봐 특별한 여름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지난 9~10일까지 이틀간 서면 오색에서 열린 제1회 환경산악영화제가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며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환경산악영화제는 이틀간 오색그린야드호텔 맞은편에 마련된 야외극장에서 전 세계 산악영화를 상영,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 여름 오색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전 세계 산악영화를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명 산악인들과의 만남도 갖는 등 특별한 이벤트로 인기를 끌었다.

또 영화상영에 앞서 유명 산악인 박정현과 오은선의 만남 행사가 이뤄져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트리클라이밍, 인공암벽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이



색체험이 각광을 받았다.

오색지킴이 홍창해 씨는 “곳은 날씨에도 많은 외지 피서객들이 오색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색 산악영화제를 즐겨 지역홍보에도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산악영화제가 지속적으로 열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오색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미래전략과 오색케이볼카담당 670-2530



강택회 장학기금 100만원 기탁

강현면 공무원 출신들로 구성된 우리군청 강택회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군수실에서 정상철 군수에게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양양송이축제 차별화로 승부

10월2~6일 개최...다채로운 가을추억 선사

올해로 17회를 맞는 양양송이축제가 오는 10월2~6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양양송이축제위원회(위원장 김우섭)가 지난 7월 31일 문화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세부행사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양양송이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양양송이와 사랑애 빠지다’를 주제로 주 무대인 남대천 둔치와 양양전통시장·송이산지·송이밸리 등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주요 행사로 산신제와 개막식, 축하공연 등 개막행사를 비롯해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외국인 송이채취현장체험 및 송이보물찾기 등 현장체험행사와 문화예술행사, 맛 체험, 상설행사, 거리행사가 열려 가을 추억은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버섯채취체험, 버섯음식점, 송이추억남기기, 양양인증샷, 행사장 내 송이보물찾기, 송이기념품 만들기, 거리퍼포

먼스 등 기본행사와 함께 송이 차 시음, 송이시스템프렐리 등 3개 신규 행사가 첫 선을 보여 재미를 더한다.

버섯채취체험은 양양송이밸리에서 송이 버섯을 비롯해 표고, 느타리, 노루궁뎅이, 해송이 등 다양한 버섯을 채취하며 버섯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북면 어성전리 탁장사체험, 손양면 동호리 멸치후리기, 서면 송천리 떡마을체험, 낙산배 따기, 양수발전소 탐방 등 지역과 연계한 이색체험 테마도 내실을 더해 잊지 못할 가을추억을 전할 계획이다.

송이축제위원회는 올해는 질 높은 양양산 자연송이와 국내산 송이 등을 엄격하게 구분해 국내 최대 송이집산지의 명성을 잇고 송이보물찾기에는 양양산 4.5등급을 사용하는 등 차별화에 주력한다. 또 올해는 그동안 행사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됐던 식권을 받지 않기로 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670-2723



양양우체국 장학기금 1백만원 전달

양양우체국(국장 임근순) 우정봉사단은 지난 22일 정상철 양양군수를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양양우체국 우정봉사단은 직원들이 매일 실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봉사를 통해 사회헌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농협 양양군지부 농업인 지원

농협 양양군지부(지부장 손재형)가 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농협은 지난 7월 30일 손재형 지부장과 박덕종 출장소장, 김효신 농정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철 군수를 찾아 관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및 주거환경개선에 써달라며 4천만원을 전달했다.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8월 장학금 기탁현황

번호	기탁일	성명	기탁금(원)	번호	기탁일	성명	기탁금(원)	번호	기탁일	성명	기탁금(원)
1	6.5	(재)동부문화재단	30,000,000	6	7.4	양양군시설(토목)직공무원일동	2,000,000	11	7.22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동문회	1,000,000
2	6.17	재직 중앙고동문회	1,000,000	7	7.11	노명옥(내곡리 하이펠리스)	300,000	12	7.22	양양군재직공무원 양양여중고 동문회	2,000,000
3	6.19	손양면부녀회	1,000,000	8	7.15	이화회원일동	1,000,000	13	8.2	양양군청재직강릉고동문회	2,000,000
4	6.24	장석삼	3,000,000	9	7.16	농협은행(주)양양군지부	4,500,000	14	8.2	양양군청재직강택회원일동	1,000,000
5	6.26	녹원갈비 대표 박종규	5,000,000	10	7.16	농협은행(주)양양군지부	5,500,000	15	8.22	양양우체국직원일동	1,000,000

대학생 문화활동 홍보역할 '톡톡'

현북면 원일전리서 다양한 활동 펼쳐 호평



우리군이 여름방학을 맞은 수도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활동이 지역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홍보대사 역할까지 톡톡히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일~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현북면 원일전리 마을에서 대학생 40명을 초청, 민박을 하며 마을 노인들에게 짚공예를 전수를 받아가 하면,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찾아가는 예술공연과 마을 사진관 운영, 이동 차(茶)방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문화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문화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지난 20일 원일전리에 도착해 점심식사 후 마을 어르신들과 이장에게 인사를 하고 제사전수를 시작으로 21일에는 마을탐방과 사진 및

영상부스 운영, 짚공예 전수, 찾아가는 공연활동 등 젊은이와 노년이 하나 되는 장을 펼쳤으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동네청소를 실시하고 주민들과 편지를 전달하는 등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

군은 이번 문화활동에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한데 이어 행사진행내용을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에 우리군의 이미지를 알렸으며, 앞으로 행사의 전 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제작해 관광객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활동은 과거 70~9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졌던 농활을 시대흐름에 맞게 변화시킨 것으로, 미래의 관광객인 대학생들에게 우리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기획사인 상상공장(대표 류재현)과 공동으로 기획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문화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국내 주요행사 및 대학축제 시 우리군에서의 활동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지역이미지 향상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戱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39.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초롱 끄고 꽃잠 들기는

다 틀렸네
다 틀렸네

흔레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오셨던 일가친척도 몇 몇 떠난 뒤였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방에 듭니다. 마주 앉습니다. 폐백 때 신부치마 폭에 안긴 대추, 밤, 꽃감의 뜻을 찾게 합니다. 즉 대추는 번성, 밤은 근본, 꽃감은 충실한 열매라 했습니다. 이어 신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감격의 初夜! 이웃들은 그냥 그 둘만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침을 문혀 문구멍을 내고 숨을 죽여 가며 번갈아 그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낮선 신부는 뜬눈으로 한밤을 지새다 새벽을 맞는다했습니다.

지금도 과연 그러할까요? 결코 세월 탓에 돌릴 일도 아닌 또 하나의 우리네 옛 풍습 소멸되는 것에 그저 아쉬움 느낄 따름입니다.

소외지역 미술체험교육 '호평'

미협 양양지부, 다섯 번째 일곱색깔무지개

미술협회 양양지부(지부장 최낙민)가 올해도 여름방학을 맞아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섯 번째 '일곱색깔무지개' 미술체험교육을 열어 호평을 받았다.

양양지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3일까지 서면 꾸매그린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현남.강원프로그램실에서 예능교실을 열고 꿈과 희망을 전했다.

강원문화재단과 양양군의 지원을 받아 매년 열고 있는 일곱색깔무지개는 여름방학을 맞아 미술학원이 없는 소외지역을 찾



아이들에게 미술창작의 기회를 제공,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낙민 지부장은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미술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와 창작열의를 갖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3회 우리군바둑연합회장배 대회 성료

김동선 · 이주천 · 박윤석 씨 각 부문별 우승



지난달 27일 열린 제3회 국민생활체육 우리군바둑연합회장배 바둑대회 결과 최강부(1~3급)에서는 김동선 씨가 우승을, 김동시 씨가 준우승을 차지했

다. 노석현 · 김용선 씨가 3위에 올랐다.

일반부 A조(4~6급)에서는 이주천 씨가 우승, 이이형 씨가 준우승을, 이상균 · 윤재복 씨가 3위를 차지했으며, 일반부 B조(7~9급)는 박윤석 씨가 우승, 김기만 씨가 준우승, 탁동수 · 이남섭 씨가 3위를 차지했다.

첫수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조별 1·2위가 본선에서 토너먼트로 자웅을 가렸으며, 각 부별 우승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위(2명) 5만원 상당의 양양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됐다.

박물관과 함께 떠나는 답사여행

9월12 · 10월12일 2회...여주시 · 고성DMZ 박물관

우리군은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오는 9월12일과 10월12일 기회에 걸쳐 '박물관과 함께 떠나는 답사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주민들의 문화공감대 형성 및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체험을 통해 역사와 문화 이해를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박물관과 함께 떠나는 답사여행 프로그램은 9월12일 명성항후 생가, 황포돛배, 신록사 등 여주시의 유적을 돌아보고 10월12일에는 고성 DMZ박물관과 통일전망대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회당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1회 차는 오는 30일까지 지역주민 대상으로 2회 차는 9월23일부터 10월4일까지 어린이 또는 초등학교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1회 차는 우리 역사를 바로알고 문화유산을 직접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며, 2회 차는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자 고성 DMZ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전시관람, 공예체험, 전투식량 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670-2548

하반기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9월3~12월4일까지...12개 강좌 165명

양양교육도서관(관장 전인희)은 2013년도 하반기 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 '책과 함께하는 지식UP! 창의력UP!'을 9월3일부터 12월4일까지 운영한다.

도서관은 학부모 강좌 3개, 어린이(청소년) 강좌 9개 강좌 등 총 12개 강좌 165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재료비(교재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하반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영어스토리텔링,

엄마표 독서지도, 통기타 교실 등이며, 어린이 대상은 수확스토리텔링, 요리 쑥쑥! 과학 이야기, 술술 읽는 영자신문, 팝업 북 마술여행, 바둑교실, 책이랑 글이랑, 생각 쑥쑥 독서논술, 초·중학생 대상 통기타 초급, 중학생을 위한 12주 완성 나만의 공부비법 등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다양한 독서활동과 문화활동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양교육도서관 홈페이지(www.yanglib.or.kr)를 참조하면 된다.

주부검침원제 1석2조 효과

제도 시행 후 민원 60% 감소

우리군상수도사업소(소장 노원현)가 상수도 민원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부검침원제가 주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그동안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검침업무를 주부검침원으로 전환, 상수도 계량기의 검침과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꼼꼼한 점검이 이뤄져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읍면별로 운영되는 주부검침원들은 매월 23일~다음달 7일까지 계량기 검침을 실시한 뒤 재택근무를 통해 매월 16~2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고 분기별 1회 집합교육을 갖는다.

이에 따라 지역 곳곳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주부검침원들은 탄력적인 근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데다, 신뢰도 담보돼 이 제도 시행 후 상수도 요금에 대한 민원이 이전보다 6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 주부검침원은 "주민들 대부분의 얼굴을 알고 있어 원활한 검침이 가능하고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검침을 하다 보니 신뢰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병행해 호응도가 높은 가운데 상수도사업소의 광역상수도 사업도 속도감을 내고 있어 고객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

노원현 상수도사업소장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상수도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을 알리는 1석2조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670-2521

양양의 8대 멋·맛·품 종합 육성

홍보마케팅 주력...시너지효과 배가

우리군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한 종합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양양8경과 함께 지역관광을 주도할 8미(味)와 8품(品)을 개발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향후 조성될 각종 인프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정된 양양8경에 이어 우리군의 대표적인 맛을 소개하는 8미의 선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설문조사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결과로는 송이버섯, 송이버섯전골, 설국,

메밀국수, 물회, 산채정식, 은어 튀김, 가지미 식해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군은 현재 낙산배와 동철감, 산양산삼, 산채, 한우 등 5대 명품에 3가지 특산물물을 추가해 우리군의 8대 명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우리군을 대표하는 8가지 멋과 맛, 특산물이 종합적으로 선정되면 이를 부각시킨 관광테마의 다변화가 기대되는데다, 농·특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소득 창출의 확고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70-2338

자연친화적 임도 관광자원화

29개 구간 83km 개설...휴양·레포츠 등에 활용

우리군이 자연친화적인 임도개설을 추진해 산림경영 활성화와 동시에 이를 이용한 여가, 휴양, 레포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6km의 임도를 개설한데 이어 올해도 10억 원을 투입해 4km를 신설하고, 7km는 구조개량 및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설구간은 현북면 장리~원일전리와 현남면 인구리~견불리 구간으로, 현북면 구간은 지난해 임도개설 구간을 연장해 오는 10월말까지 완료하고, 현북면 말곡리와 서면 내현리 등 2곳은 구조개량을 통해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산림청과의 협의를 통해 MTB대회를 비롯해 트레킹, 걷

기, 마라톤대회를 검토하는 한편, 접근성과 경관이 좋은 임도를 산책로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10회째를 맞는 양양송이 울트라마라톤대회를 서면과 현북면 임도를 연결하는 100km구간과 60km구간으로 나눠 송이축제기간인 10월 5일 개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개 구간에 총 83.53km의 임도를 개설했으며, 국유림 임도(19개 구간 262.71km)까지 포함하면 관내 임도의 총 연장은 346km에 달한다. 우리군은 전체 면적의 84%가 산림지역이다.

▶문의 산림청지과 산림경영담당 670-2719

양양명품 ‘동철감’ 재배면적 확대

2015년까지 500ha로...가공산업 지원 강화

우리군이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토종 ‘동철감’의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명품화에 나선다.

군은 꺾임으로 특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맛과 색깔 등에서도 다른 감 품종보다 뛰어난 경쟁력이 높은 동철감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해 2015년까지 재배면적을 500ha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양양읍 연창리, 임천리, 월리에서 우수 유전자원을 확보해 농업기술센터 내 감 모수포와 유망과수 포장에서 비교시험을 완료한데 이어 2010년에는 산림청에 ‘동철감’으로 정식 등록하고 묘목생

산을 허가 받았다.

군은 동철감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재배단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2009년부터 묘목 보급에 나서 올해는 상반기까지 총 1만8,500주를 공급해 46ha의 재배면적을 신규로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1만주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부터 꺾임의 원료인 동철감이 약 700톤 가량 생산될 것으로 보고 지난 2011년부터 조성해온 전업농가 육성과 가공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포장재 제작 및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담당 670-2369

옥수수조사료 생산 확대 축산농가 도움

농업기술센터, 50헥타서 350톤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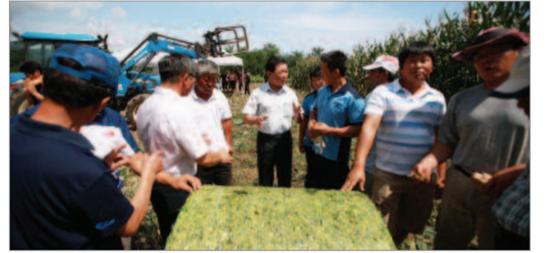
지난 20일 기계화 시연회 열려

우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가 기계화를 통해 옥수수 조사료 공급에 나서고 있어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정상철 군수와 축산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현면 하북리 옥수수 밭에서 조사료용 옥수수 곤포 사일리지 시연회를 갖고 본격적인 조사료 생산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연회를 가진 옥수수 곤포 사일리지는 조사료용 옥수수를 파종기로 파종한 뒤 컨디션과 베일러, 랩핑기, 톱백 등 자동화 기계로 사일리지를 만들어 겨울철 조사료로 공급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강현면 하북리 등 관내 50헥타에 파종한 조사료용 옥수수를 곤포 사일리지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350톤 가량의 조사료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내 축산농가들도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조사



료용 옥수수 곤포 사일리지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사료 값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고 크게 반기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한우를 키우는데 사료 값 부담이 컸는데 이렇게 기계화를 통해 옥수수 조사료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환영했다.

김순정 소장은 “그동안 벼짚 중심으로 생산하던 조사료를 옥수수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기계화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돼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축산위생담당 670-2705

전통시장 ‘신토불이 인증제’ 시행

인증 상인거리 조성...9월부터 본격 운영

우리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영농인과 상인에 대해 ‘신토불이 상인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관내에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5일장에서 지역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판매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난 7월까지 103명을 접수한 가운데, 이달까지 양양시장 상인회와 함께 자격요건 부합여부 등 심사를 통해 선정자에 대해 명찰과 단체복을 배부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토불이 인증제는 5일장이 서는 동안 연중 운영될 예정이며 선정된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주변에 산재해 있는 상인들의 기존 판매장소를 아케이드 공간 내 차도구간을 중심으로 양측에 일렬로 배치, 신토불이 상인거리로 특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시장변영회의 상인 설명회와 인증제 장터 사전 설명을 통해 자리배치를 완료하는 한편, 기존 아케이드 구간 내에서 판매하던 장돌림 상인들을 대

체장소로 이동시키고, 노점상 및 적치물을 일제 정비하는 등 그동안 비좁아 민원이 제기됐던 전통시장의 장보기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토불이 인증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미 이행, 명찰 및 단체복 미 착용, 물품 판매관련 민원발생 상인 등에 대해 시장 상인회와 행정의 합동으로 연중 지속 지도단속에 나서 1.2차 시정 및 경고 조치에 이어 3회 이상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장터 내에서 퇴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신토불이 상인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과 상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정보를 공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 적극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의 판매질서를 선도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양양전통시장에서 첫 선을 보일 ‘신토불이 상인인증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의 체계적인 운영에 따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양양읍 월리 59번국도 확장 공사

연말까지 개통 예정...시내 접근성 개선 기대

손양면 송현리 7번국도~양양읍 월리~서면 용천교를 잇는 59번국도의 확장 공사가 연말 개통 예정인 가운데 시내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강릉국도사무소는 총 70억원을 투입, 양양교~손양면 송현리 사거리 1.05km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고 양양읍 월리(푸르미아파트 앞)~서면 용천 1교까지의 왕복 2차로에는 길 어깨와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왕복 2차선으로 교통사고 위험 등 불편이 컸던 이 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돼 운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손양면 송현리 사거리 7번 국도에서 이 구간을 이용하면 곧바로 양양교를 거쳐 시내로 진입할 수 있어 관광철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릉국도사무소는 지난 2009년 주민설명회를 갖고 실시계획을 거쳐 지난해 7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연말까지 개통할 계획이다.

▶문의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담당 670-2760

철산마을 소득기반 창출 새 도약

마을식당 신축 · 감말랭이 사업 추진 등



서면 철산마을인 장승2리(이장 강동삼)가 지난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소득기반 창출에 나서며 새롭게 도약한다.

폐광 이후 내리막을 걷던 장승2리는 자원 불모지라는 악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동삼이장을 중심으로 철을 소재로 한 철산마을로 브랜드화한 뒤 이색적인 철문화축제를 열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또 주민 54명은 콩과 고추, 들깨 등 농작물을 공동으로 경작하며 소득기반을 넓히는 등 철문화축제로 높아진 마을 브

랜드를 가꿔 지난해에는 강원도의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장승2리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사업비 1억여원을 투자해 (주)일양의 소유부지 1,750㎡를 매입, 마을직영 식당을 신축하고 추어탕, 순두부 등 토종음식을 개발 판매하는 한편 잔여부지에는 친환경 농작물 재배해 식재료로 판매하는 소득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군이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동철감을 재료로 감말랭이 가공시

설을 부지 내에 추가로 도입해 소득을 창출하고 재가동에 들어간 철광과 연계한 철문화축제도 9월7~8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토속 향토방도 건축해 2020년까지 가구소득을 연간 4천만원까지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돼 경쟁력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특색 있는 농촌 만들기에 장승2리를 선정해 전문가를 통한 4차례의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폐광 이후 주민들의 절반가량이 이주하고 소득기반이 없어 낙후를 면치 못하던 장승리는 철산마을의 재탄생을 통해 마을 전체가 활력을 되찾으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 670-2336

여성친화기업 1촌 협약 추진

여성일자리 창출 및 분위기 확산 주력

우리군이 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분위기 정착을 위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 1촌 협약 및 기업환경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지역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친화적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여성친화 1촌 기업과 환경개선사업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신청 가능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점수,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연계가 많은 업체,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여성이 20%이상 근무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선발, 오는 9월중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1촌 협약 신청 기업체 중 사후관리사업인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해 여성화장실, 샤워장,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 놀이방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3개 업체를 선발해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에 업체별로 2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촌 협약을 체결하면 새일센터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발굴해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이미지 홍보 등 다양한 기업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새일센터 670-2357

현남 매호 생태계 복원 나선다

오염원 증가로 위협...생활오폐수 처리 강화

우리군은 지난 12일 재난상황실에서 정상철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호생태복원사업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의 중간용역 결과에 따르면 매호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인 갯봄맞이 1종류와 IUCN(국제자연보호연맹) 범주의 희귀식물인 꽃창포, 이팝나무, 갯방풍, 버들금불초 등 수생식물 33종, 습생식물 52종, 바닷가의 염생식물 21종, 귀화식물 34종 등 총 382종의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지동물과 연체동물, 환형

동물을 비롯해 13종 1만5,970개체의 무척추 동물과 법정보호종인 가시고기와 황어, 붕어, 송어, 잉어 등 30여종의 어류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내륙호수와는 다른 생태적 환경 때문에 해수, 기수, 담수역에 내성이 있는 특이한 생물 자원들이 서식해 종의 다양성이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호는 우기 시 경작지내의 토사유입과 농배수로의 용수유입, 주변생활오수 및 비점오염원의 유입 등으로 인해 호수면적이 점차 감소하는데다,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주변 불법경작지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호수면적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생물종 서식을 위한 수심을 유지하는 방안과 생활오수 및 축산분뇨의 처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군은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매호의 습지가 점차 원형이 훼손되고 수생태계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매호습지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형복원 및 수체계 정비와 해양생태계의 연결성 확보, 목표 종 및 기존 생물의 훼손 최소화 등 총체적인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670-2180

우리군 윈드서핑 메카로 급부상

죽도·기사문해변 서퍼들 발길...해양레포츠 거점 기대



우리군이 수산항 요트마리나로 동해안의 요트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남면과 현북면을 중심으로 윈드서핑 마니아들의 발길이 이어져 해양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남면 죽도해변과 현북면 기사문해변에 최근 주말을 이용해 700명의 윈드서핑 마니아들이 찾아 장관을 이루며 파도타기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죽도와 기사문해변을 찾은 서핑마니아들은 이곳의 파도가 서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며 해변도 안정적으로 자리해 현재 10여개 서핑업체들이 성업 중에 있을 정도다.

죽도해변을 무대로 가장 많은 140여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서퍼 911'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체가 50~6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강습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어 피서철 해양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강습과 장비 대여를 포함

해 1일 5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주말마다 200여명의 피서객들이 신규 강습에 나서며 양양군을 서핑의 고장으로 알리는데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남면의 경우, 그동안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초입에 위치해 있어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포츠가 활성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윈드서핑 마니아들까지 찾으면서 해양레포츠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국내 윈드서핑 거점으로는 그동안 제주도나 부산 등이 손꼽혀 왔으나, 최근 들어 양양군이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인프라 확충과 캠핑장 조성 등으로 입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새로운 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어항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항포구를 죽도나 기사문처럼 관광형으로 전환해 체험레저를 통한 어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어 새로운 관광자원 육성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해송이 버섯' 상품화

신품종 버섯 특허출원 중...웰빙버섯 인기리 판매 (주)해송이종식 대표 15년 연구 끝 결실

송이의 고장인 우리군에서 국내 최초로 느티망가닥 버섯의 변이종인 '해송이 버섯'이 신품종으로 개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양읍 거마리에 재배사를 두고 있는 (주)해송이(대표 이종식)은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끝에 해송이 버섯 재배에 성공, 대량생산을 통한 상

품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선을 보이고 있는 해송이 버섯은 해풍을 맞고 자란 소나무 숲에서만 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다, 성장환경이 까다로워 인공재배가 불가능했으나, 15년간 해송이 재배를 연구해온 이 대표의 끈질긴 집념으로 지난 2009년 재배사에서 자연산에 가까운 고품질로



생산에 성공했다.

특히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해송이 버섯을 느티망가닥 버섯으로 일본이 학계에 올린 뒤 방치돼 있던 것을 이번이 대표가 변이종인 해송이로 개발에 성공해 현재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9월은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9월에는 주택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건의 1/2에 해당하는 세액과 토지분에 대하여 지역지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1장의 고지서에 함께 고지합니다.(위 과세대상 중 나머지는 7월에 부과)

♣ 과세표준액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주택	개별·공동주택가액×60%	1/1,000~4/1,000	세액 5만원 이하시 전액을 7월에 5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
토지	개별공시지가×70%	0.7/1,000~40/1,000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제외),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4/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 확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와 함께 부과합니다.

♣ 납 기 : 2013. 9. 16.~9. 30.(15일간)

♣ 납부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전국의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납부·조회할 수 있는 지방세 종합서비스 누리집입니다.(이용시간 : 07:00~22:00)

◎ 현금입출금기(CD/ATM)

▪ 통장 및 국내 발행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납세자의 카드나 통장이 아닌 경우)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나 납세자의 간편납부번호(15자리)를 입력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창구 납부

▪ 현금입출금기의 사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군청 세무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납세자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민원실 창구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부과부서) 033-670-2148, 2107

지방세는 우리지역의 주민 복리와 공공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사전정보공개 목록 안내

양양군에서는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밀착형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안내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사전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의거하여

-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공개의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전정보공개 목록 : 양양군 홈페이지 : <http://www.yangyang.go.kr>
군 홈페이지 → 온라인민원실 → 행정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드림 직업전문TV채널

『한국직업방송』 운영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일자리정보, 직업능력개발강좌,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숙련기술인장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생생한 취업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일드림 전문채널인 『한국직업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직업방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과 직업의 현장 및 창업전략
-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전략
- 구직자·재직자의 경력설계를 위한 직업동향 제공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강좌 및 중소기업의 인재경영 강좌
- 청년구직자, 주부, 준고령자 등 취업애로계층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 숙련기술인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 실시

□ 방송시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tworke.net), 스마트폰(직업방송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 TV(스카이라이프 538번, SK브로드밴드 412번, 쿡 252번, 지역케이블 방송)로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피서철 기초질서(3대시각적 위반사범) 특별단속 안내



기초질서 실천으로 우리나라 세계최고

피서철 질서위반행위(오물투기등) 집중단속
속초경찰서장

○ 경찰에서는 보다 쾌적한 피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초질서 3대 시각적 위반행위(오물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불법 플래카드 게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단속기간 : 2013. 8. 15 ~ 9. 15

▶ 단속대상 : 오물투기, 광고물무단부착, 불법 플래카드게첩 등

▶ 처벌내용 :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

○ 선진 기초질서 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듭시다.

속초경찰서장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관련 Q&A

Q)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A) 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이외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Q)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A)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치료(고가 항암제 및 MRI 검사 등)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치료효과는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Q)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A)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하며,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이다.

Q)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은?

A)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며, 간병비는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033-639-9140

순환자원거래소'새단장 기념 이벤트'실시

■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는 순환자원거래소(www.re.or.kr) 홈페이지 리뉴얼을 기념하여 『출석 체크』이벤트 및 『미션! 순환자원거래소를 알려라!』를 실시합니다.

■ 이벤트기간 : 2013. 9. 25일까지

■ 이벤트경품 :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 온누리 상품권 등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소식은 순환자원거래소(www.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033-240-9534(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 순환자원거래소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거래장터로 개인이나 영세사업자들이 손쉽게 중고물품 및 폐자원을 거래할 수 있음.

이름이 뭐예요

개미, 나리, 장미, 미리내,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날말카드에 있을 법한 이 단어들은 무엇일까? 이것은 떼기, 독수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이다. 또 북한에서도 기러기, 소나무 등 10개의 이름을 제출하여 한글로 된 태풍의 이름은 총 20개나 된다. 왜 태풍에 이름을 지어준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태풍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같은 지역에 하나 이상의 태풍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예보의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다.

태풍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호주에서였다고 한다. 당시 호주 예보관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가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래서 예보에는 "현재 앤더슨이 태평양 해상에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앤더슨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다고 하니, 정치인 입장에서는 즐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 공식적으로 태풍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공군과 해군에서 예보관 자신의 아내나 애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부터였다. 따라서 대부분 여성의 이름을 수밖에 없었던 태풍의 이름은 1978년 여성단체의 항의로 여성과 남성의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게 된다.

2000년부터는 아시아태풍위원회에서 28개씩 5개조로 구성된 140개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이름들은 아시아지역 14개 국가에서 열 개씩 제출하였다. 태풍이 보통 연간 약 30여 개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이름이 모두 사용되려면 약 4~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어느 날 사라진 태풍의 이름도 있다. 이것은 매년 개최되는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그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의 이름을 퇴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인 '나비'가 '독수리'라는 이름으로 대체된 이유도 태풍 '나비'가 2005년 일본을 강타하면서 엄청난 재해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모든 피해를 다 막을 순 없겠지만 철저한 대비로 최소화 해보자.

속초기상대장 이광주